무아삼매로 들어가는 스위치

순일 이동호

이동호 씨는 자신의 신위(神位:뇌에서 백회를 지나는 수직선과 인당을 지나는 수평선이 만나는 뇌속의 한가운데 지점)와 인당(印堂:제3의 눈), 대상(對象)을 주의(注意)를 통해 한줄로 꿰어 의식을 모았다가 한순간 이완시키면 무아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삼매 스위치(?)"를 자신도 모르게 발견하였습니다. 최근 미내사에서 소개했던 NLP(신경언어프로그래밍)의 앵커링이론과 명상의 삼매상태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앵커링(anchoring)이란 용어는 '닻내리기'라는 의미에서 암시되듯이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가 형성되었을 때 유무형의 스위치(가령 마인드 컨트롤에서 세손가락을 쥐며 집중력 상태로 들어가는 삼지법과 같이)를 만들어 그것에 닻을 걸어둡니다. 연습이 잘 되면 이제 스위치를 작동시켜 즉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NLP에서는 앵커링을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마음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자긍심 등을 불러올 때 사용하였는데 이동호씨는 삼매로 들어갈 때 자신도 모르게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어떤 특정 상태와 아무 상태도 아닌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거기에도 앵커링이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스위치는 뭔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스위치를 어떻게 발견하였는지 그리고 그의 삶의 체험을 들어봅니다(편집자 주).

체험이라고 쓰기가 주저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딱히 어느 시점에서 어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떠한 체험이 왔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저 공부하던 아이에게 중간중간 어느 시점마다 공부실력이 늘은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도 써야 한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 시점이 있은 연후의 종합적인 것이기에 아주 긴 여정을 줄여서 써야하며 당연히 그러한 글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일 것이다. 또한 어느 시점에 있었던 체험이 또 왔던 경우도 있어서 시간 순서대로 쓰기에도 어려운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한가지 작은 통찰이라도 일어나게 한다면 그것으로써 고마울 뿐이다.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관계로 나는 영세를 받았다. 성당엘 열심히 나가던 중학교 시절 어느 날 신부님에게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엘 가느냐고 물어 보았다. 신부님은 그렇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자식이 나쁜 짓 하여 감옥에 가더라도 보통은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부모인데, 그것에 비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얼마나 작은가 하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원수도 사랑하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으로서는 힘든 일이란 것을 그땐 알지 못했다). 물론 하나님이 있다고 철썩같이 믿던 시절이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고민 끝에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긴 수필을 썼다. 그러자 더럭 겁이 났다. 철썩같이 믿고 있으면서도 내 의지로 하나님을 부정했으니 이제 내가 죽어서 갈 곳은 지옥 밖에 없다고 여긴 것이다. 고민하면 할수록 이번 생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 로봇과 같은 삶을 사느니 내 의지로 지옥에 가리라."라고.

'이 생을 어떻게 보낼까?'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도 진지한 선언이 되었다. 그리고 이 짧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보고 깨끗이 가리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삶이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같은 생활처럼 여겨졌다. 사람들은 모두 '돈' 때문에 사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정했다. '돈 때문에 살지는 않겠다. 또 행복만 추구하는 순탄한 삶은 밋밋하고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삶이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맛보고 가려면 고통을 비롯하여 무엇이건 맛부딪치리라. 그 모든 굴곡과 모든 희로애락을 맛보고 가리라.'고. 정하긴 이리 정했으되 살다 보면 나약함이 드러날 듯 하였다. 그래서 자기최면을 걸듯이 좌우명을 만들었다.

첫째, 자기가 하고픈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둘째, 후회하지 말자.

셋째, 책임지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경험해보자는 것이다. 혹시 하고 싶은데 결과에 매달리거나, 사회적 관습에 대한 도전이 되어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 아예 최면으로 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생각이 떠오르면 무조건 실행에 옮겨보겠다는 결정이었다.

두 번째는 하고 싶은 것을 아무 생각없이 하다보면 분명 잘못된 선택도 있을 터이고, 그 결과 수많은 고통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후회한다면 하고 싶은 것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내 스스로 오라고 한 고통들로 인해 후회하지 말자고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살인과 같은 보편성에서 벗어난 일은 할 수가 없다고 여겨서 정한 것이다.

말없는 침묵, 평화로운 침묵

당시까지 나는 공부도 잘하고 순종적인 학생이었다. 헌데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엄정한 사실 하나로 점차 무서울 것 없는 아이로 변해갔다. 여자도 사귀고, 두려움 없이 담배도 피웠고,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어른들을 조롱하듯 술집에 버젓이 교복 입고 들어가서는 술을 시키곤 했다. 물론 주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 그러면 말라는 식으로 나오곤 했다. 이것이 좌우명을 정한 후에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일면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급우가 던진 볼펜에 오른쪽 눈 한가운데를 맞고 동공이 찢어져 안보이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머니는 기절할 정도였고 다치게 한 급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분노나 슬픔, 앞으로의 걱정 등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고통이여 오라, 너를 맞으리라'는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눈을 꿰매고 백내장수술, 녹내장수술 등 세 차례의 수술을 하고 치료 받던 중 아랍에서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를 따라 온가족이 아랍에미레이트로 떠났다. 아랍에서의 일년 여간은 사막과 모래뿐이었다. 이사를 간 아즈만이라는 곳엔 가도 가도 사막, 온통 사막뿐이었다. 눈을 다친 후 조용하기만 하였던 나에게 그곳은 또 다른 고요를 주었다. 나는 말이 없어졌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우리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나는 복학을 했다. 이미 말을 잊었던 나는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아랍의 사막에서 어쩔 수 없이 느끼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침묵이 일어났다. 전의 침묵은 그저 말없는 침묵이었으나 이때 경험하게 된 침묵은 말이 없긴 하되 무언가 평화로운, 아주 행복한 침묵이었다. 개나리 옆에 가면 내가 개나리가 되는 그러한 침묵이었다. 버스를 타고 내리든, 학교 가는 이 여분의 길을 걷든 거의 늘상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공부시간에도 창옆에 앉아 수업은 전혀 듣지 않

고 밖의 꽃과 나무들만 쳐다보며 마냥 평화로움에 빠져있었다. 지금도 왜 그러한 나를 선생님들이 혼내지 않고 그냥 두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던 어느날 등교길에 늘상 그랬듯이 돌을 보고 마음속으로 안녕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음속에서 '내가 신이야.'라는 외침이 일어난 것이다. 행복의 전율과 함께 모든 것이 명확해지면서 만상이 정지했고 그 상태에서 지복과 사랑을 보았다. 보이는 것 모두가 사랑으로 다가왔다.

고통이여 오라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할 일이 많아졌다. 술과 담배도 많이 늘었고 점차 그 평화스러움은 지속되지 않게 되었다. 허나 그것에 별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그 평화가 일부러 추구해서 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왔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였지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그것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했고 여자와 동거도 하였다. 음악을 한다며 매일 술을 먹었고 평화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여자 문제는 많은 고통을 가져왔고 음악 쪽으로의 진로 변경은 부모님과의 갈등을 일으켰다. 사회적으로 고통이라는 것들을 거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취직을 했다. 이때는 마음먹은 대로 직종을 바꾸고 사업을 해나간 시절이기도 했다. 떠오르면 무조건 하다보니 같은 직종이라고는 단 하나도 해본 적이 없고 전혀 다른 직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해나갔다. 그러다가 망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는 등 여러 고통들이 왔다. '고통이여 내게 오라'고 정하여 놓고 그 말을 잊지 않았지만 그래도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었다. 그때서야 도대체 어렸을 때 왔던 그러한 평화로움이란 것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어 알고 싶어졌다.

여러가지 책을 보았다. 명상관련 서적을 보면서 그것이 삼매상태였다고 짐작을 했다. 그때부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관심은 온통 그쪽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그러한 것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렸을 때의 평화로운 상태로 다시 가고자 한 것뿐이었다. 어렸을 때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 더듬어보는 중에 신위와 인당, 대상을 한줄로 꿰어서 그것마저 사

'고통이여 내게 오라'고 정하여 놓고 그 말을 잊지 않았지만 그래도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었다. 그때서야 도대체 어렸을 때 왔던 그러한 평화로움이란 것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어 알고 싶어졌다.

라지면 육체의 온전한 이완이 왔던 상태를 기억해냈다. 그것이 생각이 사라진 무심의 상태라는 것은 간과한 채였다. 노력하면 드문드문 그 상태가 왔다. 허나 온전한 평화가 아니었고 아주 약하게 드문드문 왔을 뿐이다. 그 방면의 책을 읽어가면서 깨달음이란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깨친 이를 찾아 네팔이나 인도 등 해외로 나가곤 했다. 사회생활을 하긴 하되 이제 모든 관심은 깨달음 쪽에 있었다.

지금부터 십 여년전 부모님이 미국에 가신다하여 나도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갔다. 처음은 이모님 댁에서 이럭저럭 지내다가 곧 메릴랜드의 락빌이라는 산속 아파트로 이주하였다. 차가 없던 우리에게 그곳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다. 새벽에는 아파트 앞에 야생사슴들이 다닐 정도로 깊은 산속이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숲길을 두 아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그저 멍하니 앉아 있는 것 뿐이었다. 점차 발코니 앞에 앉아서 사슴을 보는 일이 많아졌다. 헌데 그곳에서 예전의 평화로운 상태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잠시잠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상태는 오하이오에 사는 친구에게서 한번 놀러오라는 연락이 오고부터 또다시 깨어졌다. 부모님은 이러고 멍하니 지내는 것보다 그편이 낫겠다며 갔다오라고 재촉하였다. 며칠 후에 오하이오로 떠났다. 산속 아파트에만 있다가 나와서인지 바깥은 별천지였다. 오하이오에 도착하니 친구가 한국음식점에서 환영식을 열어주었다. 맛있는 생선회에 소주 그리고 노래방에서 날을 보냈다. 그렇게 며칠인가를 보내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일손이 모자란다며 도와달라는 전갈을 보내 왔다. 부모님은 대찬성하며 적극적으로 가라 하였고 그렇게 다시 오하이오를 향해 떠났다. 오하이오에선 거의 매일 술이었다. 조금 지

속되던 평화로운 상태가 깨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제 삼매의 평화로운 상태와는 다른 일상적인 평화로움이 벌어질 뿐이었다. 그것은 아무 생각없는 일상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이혼하고 딸이 하나 있는 교포 여자를 만났다. 망년회를 하던 한국음식점에서 만났는데 매력적인 그녀와 금방 친해졌다. 때마침 한국에 들어가야겠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내 아이들을 데려가라는 전갈이 와 있는 상태여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함께 사는 그 생활은 우리와 아이들 모두에게 고통이었다. 특히 나의 두 아들과 그녀의 딸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결국 그녀는 나의 두 아들을 내보내라고 최후 통첩을 하였다. 그때 이미 미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던 나는 아이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오하이오에서 시카고까지 먼길을 차로 운전하여 가는 동안 내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끼리 비행기에 오르면서 쏟아내는 마지막 몸부림과 눈물은 나의 가슴을 더욱 찢어 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일찍이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에게 주었던 고통들이 있었는데 또 한차례 고통을 당하다가 버림을 받는다고 여기며 몸부림치던 내 아이들의 모습. 이미 고통이여 내게 오라고 외치던 나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너무도 참기 힘든 아픔이었다.

그녀와 난 서로에게 마지막의 고통을 주고, 상처를 낼 대로 낸 상태에서 헤어졌고, 나는 왼쪽 쇄골이 분질러진 상태로 한국에 돌아왔다. 이때 가진 돈이라곤 몇 십만 원뿐이었다. 고시원이라는 데를 들어갔다. 겨울내내 병원에도 못가고 그저 누워서 뼈 붙이는 데 시간을 보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일로 즉석 인쇄 장비들을 배워 베트남 전시회에 투입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오자마자 한국전시회에도 나갔으며 그곳에서 체인점을 두 군데 계약하였다. 육개월인가 계약을 하나도 못했던 그 친구 회사로선 좋은 일이었고, 내게도 들어가자마자 성과를 보였기에 흐뭇한 일이었다.

고통이 이해되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제 미국에서의 일을

비롯해 무엇이든 다 포기했을 때였다.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종종 회사 바깥에 나가 길에 철퍼덕 앉아 그저 햇볕을 쬐곤 하였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웠던 일들,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어느새 훌훌 털어졌다는 것을 안 것이다. 고통이라는 것들이 우스워서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저 이해되어졌다고나 할까.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이해가 온 것은 아니었다. 그저 산다는 것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이 왔을 뿐이다.

그러다가 개인사업을 하고자 마음먹고 친구에게서 어음 육백만원짜리 두장을 빌려 신문에 광고를 냈으며 그것으로 체인점과 지사 두군데를 모집하였다. 바로 사천만원인가 들어왔고 그것을 밑천 삼아서 사업도 확장해 나갔으며, 그것과 다른 종류의 체인점 본사를 하나 더 내서는 다음해에 십억정도 매출을 내기도 하였다.

여하간 이렇게 생활이 피기 전, 여러 과정에서 파생된 고통들이 더욱 더 진행되고 마지막에 더 이상 어쩔수 없는 극한점까지 간 적이 있었다. 사회생활의 극한뿐 아니라, 깨달음이란 측면에서도 더 이상 그런 것은 없거나 이제 그런 것을 바랄 수 없다는 상태에까지 간 것이다. 그때서야 초심으로 돌아갔다. 열 다섯 시절로 돌아간 것이다. '그래 내가 무엇을 바랬단 말인가. 그 당시 나는 그저 이 삶을 치열하게 다 맛보고 가겠다는 것이었지. 돈이나 깨달음, 그 어떤 것을 한번이라도 바란 적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무엇이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했고, 원하면 무엇이든 가차없이 했던 세월 아니었던가. 그래 이제 되었다. 맛볼 만큼 맛 보았다. 무얼 더 바랄까. 이제 모든 걸 다 놓아버리자.'며 놓기 시작했다. 헌데 묘한 것은 이러한 놓음은 일면 포기처럼 보였으나 포기라고 말하기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지나가는 파노라마

너무도 무상하다고, 이 삶에서 무언가를 바랄 것이 없다고 느꼈다. 놓음은 일면 무소유적인 측면이 있었다. 헌데 딱히 어느 것 때문에 혹은 어느 시점에서라고 말할 수 없으나 놓고 비우며, 지나온 세월을 마치 죽을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며 반추하던 중 내가 잘못 살아왔던 세월이 영화처럼 보였다. 십여일간 끊임없이 생생한 입체 영화처럼 살아온 나날들이 보였다. 보고는 울고 또 보고는 울고. 잘못 살아온 삶들, 나의 잘못된 여정 때문에 가슴 찢기는 고통을 받은 아이들, 아내, 미국의 그녀, 부모님과 주위사람들, 동생들.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 지어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였다.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다.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주체가 나라는 사실에 참회하고 또 참회를 하였다. 긴 영화는 끝이 났다. 영화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삶의 여정이 무엇인지가 와 닿았다.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과거의 잘못을 빌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은 잘못을 안하리라고 다짐했다. 사실 다짐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깊은 참회와 이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어찌 같은 일에 또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곤 스스로를 용서했다. 일부러 용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가 벌어졌다. 전체의 여정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느낀 것이다. 이해할 때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의 여정을 알았다. 이해하지 못하는 한 또 오고, 또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여정. 끝내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해야만 끝나는 이 여정을. 그리곤 오랜만에 정말 아무 생각없는 시간들을 보냈다. 그저 더 비우고 더 무소유하며 더 놓았다. 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놓아버렸다. 바라는 것 없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한가로운 시간으로 보냈다.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그러던 중 어느날부터 생각들이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냥 덩어리로 생각이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갔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늘 무엇을 하든 생각이 꽉 차있고, 생각으로 돌아가던 삶이었는데 그 생각들이 빠져나간 것이다. 어렸을 때 이후 처음으로 선명하게 대상들을 보았다.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생각이 사라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미세한 생각들이 남은 것을 느꼈는데 그것마저 사라졌다. 이제는 그저 어디건 나가 앉는 게 습관이 되었다. 한정없이 걷거나 못 끊던 술담배가

내가 우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깨져버리는 순간 우주가 내 속에 있었다. 공명하기 시작했다. 텅 비워지고 깨져버려서 나라고 할 만한 무엇이 없어지니 공명하기 시작했다

절로 끊어졌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 어렸을 때 삼매상태에서도 생각이 끊어졌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떠올렸다. 혹시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까? 잠깐 한 생각이 났다. 허나 그 한 생각을 지속하기엔 이미 너무도 많은 것들이 덩어리로 빠져나가버렸다. 이제 그것이건 아니건 상관없었다. 무엇도 바라지 않고 지켜보기만 할 뿐. 어렸을 때의 그 평화로운 상태로 가기 위해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세월만 갔을 뿐. 이상한 일은 가끔 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꿈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며 그 꿈들에서 내가 모르고 궁금해 하였던 것들이 하나 하나 보여졌다는 것이다. 영화처럼 생생하게 보여졌다. 그것도 현상에서의 일반적인 스토리가 아닌 지혜가 담긴 것들이었다. 허나 그것도 지속되던 어느 날쯤 가서는 명확히 보이는 꿈이 아니었다. 그저 단순히 도형 하나 주어지는 혹은 무언가 형상으로 보여지는 것이었다. 그 뜻이 무언가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것이 지혜가 담긴 것이라는 것도 언뜻 알겠는데 깨고나면 재해석이 안되는 꿈이었다. 그러므로 깨어나 얼른 재해석을 해내지 않으면 금시 잊어버리는,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쯤, 비몽사몽간에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응접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다. 눈을 뜨고 있었는데 온몸에서 두려움들, 컴컴한 어둠들이 스물스물 빠져 나가는게 아닌가. 분명히 두 눈을 뜨고 깨어 있었으며 눈으로 보였다. 그 모든 어둠들이 나가자 갑자기 일어나서 기쁨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스스로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이 빠져나갔음을 알았던 것이다. 한참을 춤추다가 옷방으로 쓰던 방에 들어가 옷더미 속에서, 전에 갖고 있던 알 수 없는 미세한 두려움까지 사라진 채 평안을 만끽하며 누워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평안하여졌다. 어디를 가든 마치 내 집에 온듯

한 마음이었다. 그때서야 지금까지 온전히 평안하지 않았던 이유가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나온 외침이 방어할 두려움이 없는 자유였다. 그 이후로 백화점 앞 의자에 앉아 지나는 버스를 보건, 어디를 가든 모두 평안함 그것이었다. 이때 무아상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았으며 지혜가 열렸다고 스스로 느꼈을 때였다. 화두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화두라곤 잡아 본적이 없던 나로서는 그저 책에서 본 몇몇 화두가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들의 의미가 잡혔다. 그 와중에도 꿈에서는 끊임없이 이것 저것 보여졌는데, 어떤 것은 명확한 스토리며 어떤 것은 그저 보여짐이었다.

깨어있는 꿈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꿈이지만 명확하게 깨어있었다) 몸이 텅 빈, 마치 껍데기만 있는 얇은 양철통이 되어 있었다. 손이 쭈욱 펴졌으며 온몸도 쭈욱 펴졌다. 꿈속에서였지만 명확히 깨어있어서 보았는데, 실제로 자고 있던 몸이 이렇게 쭈욱 펴졌다. 그러더니 위아래가 뚫린 형상이 되었다. 입으로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항문으로 바람이 나가는 형상이었다. 텅 빈 양철통 속에 아직 시커먼 찌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람이 들고 날 때마다 술술 빠져나갔다. 그리곤 깨끗하게 텅 비었다. 잠속에서 이렇게 편한 잠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 동안은 헛살았구나 하면서 처음으로 너무도 편한 잠을 잤다.

이러한 꿈이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꿈도 아닌 현실에서 어느날 그냥 있는데 그 양철통의 겉부분 그러니까 얇은 껍데기가 바삭하고는 깨져버렸다. 안팍이랄 것 없이 툭 터지고 깨져버린 것이다. 내가 우주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깨져버리는 순간 우주가 내속에 있었다. 공명하기 시작했다. 텅 비워지고 깨져버려서 나라고 할 만한 무엇이 없어지니 공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공명이란 말은 굳이 표현할 말이 없어서 쓴 말이다. 번개가 친다 할까, 전기가 일어난다고 할까. 기공이라곤 공부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몸에서 무언가가 밖과 공명하고 있었다(굳이 밖이라 이야기하지만 안팎이 없어졌기에 공명함을 느꼈다). 허나 이 공명은 누구나 하고 있음도 느꼈다. 일반인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화가 안 되어 찌꺼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명이 일어나자 오만이 시작되었다. 난 이제 깨달았다고 느낀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없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었으나 묻어두었다. 공명이 시작되면서 차크라라고 하는 모든 육체의 기관이 뚫렸다고 느낀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거나 이상한 일이 있을 때 손을 대면 낫기 시작하자 아내도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이때쯤해서 내가 들었던 화두는 다 풀렸다. 화두란 무아상태에서 만들었으며 무아상이면 다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의문

이러한 오만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참나가 스스로 알려주길, 참나를 놓으라 했다. 깨달음을 놓지 않는 한쪽의 마지막 의문은 영원한 것이라 했다. 참나가 스스로 알려주었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정화가 되어서 참나에 가까이 서니 내가 할 일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다. 깨달음을 불쏘시개로 써 버린 것이다. 깨달음은 마지막 방편이란 것도 알았다. 참나란 것도 버리라 해서 버렸다. 정확히 말하면 추구하던 것을 버린 것이며 그러한 것이 있건 없건 더 이상 바람이 없어진 것이었다. 바란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러던 중 온전히 모든 것을 놓는다는 시점을 지나 저절로 놓여짐이 일어났다. 시작은 내가 놓는 것에서 하였으나 진실을 말하자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놓여질 수 있을 뿐이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놓여졌다.

자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몸은 자고 있는데 깨어있었다. 삼 개월 여간 그러한 상태로 깨어있었다. 그 깨어있음을 단어로 어떻게 이야기 할지 모르겠으나 생각이란 아예 없으며 할 수도 없는 깨어있음이다. 그 깨어있음은 그렇게 명확히 깨어있되 생각할 수 있는 혹은 생각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전까지 나는 두 가지 오류를 범했다. 하나는 무아상 상태에서 화두를 만들고 푼다 하였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무아상을 지나서 그 온전한 깨어있음에서 생각없는 자리의 보여짐이 있다. 그것을 억지로 말로 보여주려 재해석해서 만들어진 것이 화두였던 것이다. 또 하나는 그전에 생사일여 했다 했으나 이러한 생

사일여가 말 그대로 생사일여 아니라 관념이 어느정도 섞인 생사일여였던 것이다. 깨어있음 자체면 그저 이러 저러 필요없이 생사일여인 것이다. 오로지 시방이 그것이며, 오로지 시공이 있었던 적이 없으며, 오로지 만상이 꿈이다. 그러나 의미없는 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것 모른다

그후 스스로에게 깨달았나 물어보았다. 대답은 "깨달음, 그런 것 모른다"이다. 깨닫지 못한 점이 있는가 물어 보았다. "깨닫지 못한 점이 없다"이다. 지혜가 있나 물어보았다. "지혜가 무언지 모르겠다"이다. 지혜가 없나 물어 보았다. "아무리 뒤져보아도 실상과 현상에 모르는 관점이 없다" 이다.

중도란 무엇인가? 흔히들 중간적인 태도 혹은 답이라 한다. 누구는 맞다 하고 누구는 틀리다고 한다. 결과적으론 맞지만 원인을 모르면 소용이 없다. 중도란 모든 관점을 알았기에 어느 한 관점에서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어 시시비비하지 않음이다. 현상의 어떤 것도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기에 어느 하나를 부여잡아 절대진리라 말할 수 없음이다. 허나 그림자가 있어 몸을 알고 몸이 있어 마음을 알듯이 현상이란 그림자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므로 누군가 진리 그 자체라면 그림자 역시 또한 진리이다.

내가 알게 된 것은 그저 평화이다. 온전한 평화이다.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은 그러한 평화이다. 깨달음이 무어냐 물어온다면 그러한 것 없다고 말한다. 불교식으론 무상을 알고 지혜가 열려 집착을 버리고 무아마저 버리면 그 자리일 것이다. 기독교식으론 사랑으로 시작하여 조건없는 사랑, 즉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 자리일 것이다. 허나 무상이란 학교 공부 가르치듯이 공부나 방편으로 전해질 수 없음이요, '원수를 사랑함'을 스스로 알기 전엔 어떠한 공부로도 전할 수 없음이다. 때가 되면 우수수 낙엽은 떨어진다. 때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도 전할 수 없음이다. 때가 안 되었다면 그저 선하게 선하게 행할 밖에.